

세무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2012년 9월 pp.141~170
한국세무학회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감가상각방법 선택의 관련성*

이화득** · 박선희***

<요 약>

경영자는 기업의 수익성 증대와 성장을 추구하고,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내·외부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명시적인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관행이나 실무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조건이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일부분이며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과 관련이 있어 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성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이 기업의 장기적으로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이 회계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기반을 둔 회계선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Bowen et al.(1995)을 확장하여,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가 감가상각방법의 회계선택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외국보다는 보상계약이나 부채계약과 같은 명시적인 계약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고, 이용되더라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인 요구에 근거한 회계선택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영자는 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그리고 단기채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 요구사항들로 인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 및 자산성장성과 감가상각방법 선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업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내부소유집중도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자는 내·외부이해관계자들 중에서 특히 고객, 공급업자와 종업원들의 암묵적 요구에 의존하여 이익을 상향 보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즉, 정액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에 일치하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자산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증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상향 보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회계선택,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이익조정, 암묵적 요구, 이해관계자, 자산성장성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2-G)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hwayi@hanyang.ac.kr, 010-3828-9793, 제1저자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sunny@hanyang.ac.kr, 010-5054-9878,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2년 1월

1차수정일 2012년 3월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I. 서 론

경영자는 기업의 수익성 증대와 성장을 위해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명시적인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관행이나 실무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명시적인 계약서의 예로는 경영자 보상계약과 부채계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일부이며 대부분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암묵적인 요구사항의 예로는 공급업자나 종업원, 고객, 채권자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은 아니지만 경영자는 이 암묵적인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

회계선택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계약상 조건에 근거를 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Hagerman and Zmijewski(1979)와 Skinner(1993)에서 기업은 계약상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기업에 당장 막대한 손해를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조건의 위반을 피하기 위한 회계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조건이 기업의 회계선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과 관련이 있어 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성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예를 들면 공급업자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료공급 등을 중단하거나 신용거래를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종업원이나 채권자 등의 경우도 공급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며, 건전한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만일 경영자가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인 요구(implicit claims)를 반영할 유인이 있고 그 유인에 따라 회계선택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기업의 회계선택은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이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해관계자의 암묵적인 요구사항이 회계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Macneil(1978, 1980)는 합리적인 계약에는 기업과 경영자, 종업원, 주주, 장·단기 채권자들 사이에 암묵적 요구사항들이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Bowen et al.(1995)은 기업과 이해관계자(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단기채권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 요구사항과 관련한 연구결과에서, 경영자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상향 보고할 수 있는 회계선택을 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Bowen et al.(1995)을 확장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회계선택에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¹⁾ 국내에서는 외국보다는 보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법인세 효과의 관계와 관련한 연구는 과거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실증 분석 되어 왔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그리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구분함에 있어 법인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부는 암묵적 요구를 제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상계약이나 부채계약과 같은 명시적인 계약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고, 이용되더라도 일부 대 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암묵적인 요구에 근거한 회계선택 연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가상각방법은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고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내·외부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익을 높게 혹은 낮게 보고하는 회계방법(즉,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을 선택할 유인을 가질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자산에 대한 투자 혹은 처분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므로, 투자규모에 따른 자산성장성과 감가상각방법 선택의 연관성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단기채권자 등이다.²⁾

연구결과, 암묵적 요구사항의 대리변수들 대부분은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성장성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이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에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명성을 유지하고자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회계선택연구나 감가상각방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계약상의 조건과 이익조정 수단 등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영자보상가설과 부채계약가설, 규모가설 등의 3가지의 계약가설에서 확장하여 기업의 내·외부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경영자가 이들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자산성장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명시적인 계약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암묵적인 요구조건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설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 및 한계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명시적인 입장을 갖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즉,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한도액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의 대리변수로 노동집약도(LABOR), 종업원급여(SAL), 연구개발비(R&D), 단기채권(NP), 내구재(D_{DUR}), 광고선전비(ADV), 비제조업(D_{NMFG}*CGS), 제조업(D_{MFG}*CGS) 등을 사용하였다.

II. 회계선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회계선택과 여러 이론들과 관련된 연구

기업의 회계정책은 주주와 경영자 등의 경영주체를 중시한 대리인이론과, 자산·부채·자본 등 경영객체를 중시한 부채계약이론, 정치적 비용가설, 절세선호특성, 자본시장 유인특성 등과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Watts and Zimmerman(1978)은 회계기준에 대한 경영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 금, 규제, 정치비용, 정보생산비용, 경영자보상계획 등이 있으며 이 요인들에 경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관련하여 일반물가수준조정(General Price Level Adjustment, GPLA)에 관한 1974년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토의각서에 대한 반응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회계정책은 특정기업이나 산업의 고유특성, 세금, 정부규제, 경영자보상특성 등과 체계적으로 연관되며, 여러 대체가능한 방법 중에서 상대적 손익효과를 고려하고 기업의 고유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경영특성 요인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연결되므로 어느 한 특성이 회계이익 증가나 감소의 특정한 방향으로만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Hagerman and Zmijewski(1979)는 경영자가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이용되는 회계절차변경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대체적인 회계방법 가운데서 특정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동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검증하였다. 회계방법 선택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 요인으로 기업규모, 사업위험, 자본재집약도, 시장경쟁, 경영자보상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회계이익 과대·과소계상의 대응변수로서 보고이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감가상각방법과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규모가 크고 사업위험이 높으며, 경쟁이 심할수록 회계이익을 과소계상하는 회계방법을 선택한다는 유의적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자본재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감가상각방법은 오히려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정액법을 선택한다고 보고하였다.

Skinner(1993)는 기업규모(정치적 비용), 부채비율(재무레버리지), 주식시가의 자기자본 장부가액비율(자본시장압력), 총자산수익률(ROA) 등의 일반적 요인과 안정지향설비투자금액비율(=설비투자고정자산/기업가치)과 성장지향기회비율(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등) 등의 투자특성 요인이 회계방법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규모, 부채비율, 상여금제도 등이 회계이익의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의 일반적 예상과 부합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각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비율과 연구개발비율 등의 투자상태가 부채계약, 보너스계약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투자상태를 통제요소로 반영해도 회계방법 선택에 대한 기존이론의 설명력은 계속 유의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기업가치에 비해 공장, 기계장치, 부동산 등 유형자산 투자가

많은 기업 즉, 자본재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감가상각방법에서는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정액법을 선택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진권(1994)은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액법 사용 경향이 높고, 규모가 작을수록 정률법 사용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로 이인순(1994)은 경영자의 자발적인 회계정책 선택 동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평가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특정의 회계방법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규모, 시장성장성, 시장점유율, 설비투자증가율, 자본집중도, 세율, 유보율을 선정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인 프로빗(probit)분석을 사용하였다. 계약과정이론과 정치과정이론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우리나라 경영자의 회계정책 선택행동은 계약과정이론이나 정치과정이론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 회계선택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 요인과 관련된 연구

Holthausen and Leftwich(1983)는 기업의 회계방법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과 계약 및 통제요인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였다. 첫째, 전문경영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을 증가 계상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회계이익을 근거로 한 경영자성과보상계약이 강할수록 이익증가 회계방법을 선택한다는 연구결과와 둘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차입금계약에서 좋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이익을 증가 계상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연구가 있다. 셋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부규제와 소비자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익감소 회계방법을 선택한다는 정치적 비용가설과 넷째, 자본시장에서 정보과리가 큰 기업은 회계이익 정보로 기업의 수익성을 전달하여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시안적 경영자가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회계방법 선택에서의 주요 영향변수로서 기업소유구조, 부채비율, 경영자보상제도, 기업규모, 수익성, 주식가격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규모가 큰 기업, 정부규제산업, 소유경영기업 등이 이익감소 전략을 취하고, 부채비율 높은 기업, 경영자보상제도가 강한 기업, 세율이 낮은 기업, 수익성 낮은 기업이 이익증가 전략을 선호한다고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향변수 중 하나인 기업소유구조는 각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수익 등의 여러 경영특성요인이 균형을 이루어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기업소유구조와 회계선택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Demsetz, 1983). 기업의 고유 경영특성 요인이 회계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며, 기업소유구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규모, 설비투자상태, 자본구조, 조세제도 등의 요인들이 기업의 회계선택에 개별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주와 경영자가 기업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 결정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

Macneil(1978, 1980)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계약에는 기업과 경영자, 종업원, 주주, 장·단기 채권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암묵적 요구사항들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요구사항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집단 이상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조건(예를 들어 가격, 지불조건, 수량 등)에서 일방적으로 한 집단에 의해서 계약위반 및 해지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Bull(1987)은 이러한 계약위반의 형태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업의 명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기업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암묵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elser(1980)에 의하여 논의된 것처럼, 기업의 명성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의 현재가치는 만약 회사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 약속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나타낸다. 이렇듯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현재가치가 암묵적 약속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당기이익을 초과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사항은 경영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류를 기존 선행연구³⁾와 일치하여 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단기채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 1>에서 기업과 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단기채권자 사이의 거래 조건과 관련한 암묵적 요구사항의 예를 제시하였다. 비록 암묵적 요구사항들이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암묵적 요구사항은 많은 기업에게 만연해 있는 사항임에는 분명하다.

3) Macneil(1978, 1980)은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분류를 공급업자, 고객, 종업원, 채권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상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암묵적 요구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Titman(1984)와 Cornell and Shapiro(1987)에서도 이해관계자를 고객, 종업원, 공급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표 1〉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의 예

구 분	암묵적 요구사항 예시
공급업자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의 경우, 기업에서 적시에 물품대가를 지급해 주며 거래가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고객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구체화된 제품에서의 진보한 성능을 원하며, 특히 내구재를 이용할 경우는 장기간 사용할 제품이므로 사후 서비스(A/S)의 제공 등의 요구할 것이다.
종업원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은 좋은 근무환경의 제공이나 미래의 적절한 성과보상 등을 제공받기를 원한다.
채권자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들은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사전에 정해진 지급일에 맞춰 채권을 회수 가능할 것 등이 요구되어진다.

내·외부이해관계자는 기업이 자신들의 암묵적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행한 결과로 기업의 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Cornell and Shapiro(1987)과 Maksimovic and Titman(1991)는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상태가 암묵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유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인 이미지는 기업의 명성에 대한 주주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Maunders and Foley(1974)는 재무보고서가 종업원들이 관여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적 이미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재무보고서가 종업원들에게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신호로서 기업이 보고하는 재무적 수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은 자산의 일정수준을 유지시키거나 대체하는 경우나 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자산의 추가 구입 및 투자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증대되는 경우 기업에서 감가상각방법 선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가속상각으로 자산을 교체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갈 유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자산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률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⁴⁾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보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무적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고 따라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정액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Skinner, 1993). 따라서 이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클 것인가에 따라 감가상각방법 선택과 자산성장성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4) Jackson et al.(2009)는 가속상각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정액법을 사용하는 기업에 비하여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서 장부가액에 대한 심리적 요인으로 가속상각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영자는 이해관계자와의 암묵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며 기업의 명성유지를 위한 노력이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가상각은 내용연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익을 상향 보고 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고 이것은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와 기업내 자산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기업의 감가상각방법 선택은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기업의 감가상각방법 선택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성장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명성유지와 보고이익 등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위하여, 경영자는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자산성장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경영자는 위에서 살펴본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와 자산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익을 상향 보고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을 가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실증분석을 위한 주요한 종속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감가상각방법과 기업이 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그리고 단기채권자들의 암묵적인 요구사항에 의존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선택한 대용치(proxy)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모형은 다음 식(1)과 같이 설정하였다.

$$DM = a_0 + a_1D_{DUR} + a_2R\&D + a_3SAL + a_4LABOR + a_5D_{MFG} * CGS + a_6NP + a_7ADV + a_8LEV + a_9ROA + a_{10}SIZE + a_{11}PER + \varepsilon \quad (1)$$

그리고 자산성장성을 고려한 감가상각방법 선택시의 유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식(2)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자산성장성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여서도 살펴보았다.

$$DM = a_0 + a_1D_{DUR} + a_2R\&D + a_3SAL + a_4LABOR + a_5D_{MFG} * CGS + a_6NP + a_7ADV + a_8LEV + a_9ROA + a_{10}SIZE + a_{11}PER + a_{12}GW + \varepsilon \quad (2)$$

가. 실증변수

경영자는 개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산별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주석사항에 공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이익증가의 방법으로는 정액법⁵⁾과 이익감소의 방법으로는 정률법⁶⁾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일정기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Pincus(1994)와 Christie and Zimmerman(1994)에서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할 때 순이익 보고에 감가상각방법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가상각방법(DM)의 종류를 종속변수로 하며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인 정률법을 선택한 기업은 0을,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정액법을 선택한 기업은 1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경영자는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자산성장성을 고려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유인이 있으므로, 이익 등을 상향 보고하기 위해서 정액법을 선택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 독립변수

기업은 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단기채권자들의 암묵적 요구사항에 의존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대응치를 설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각각의 암묵적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변수들과 자산성장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1) 고객

일반적으로 내구성 있는 제품(즉, 내구재)을 구매하는 고객은 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성능의 질적 우수함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내구재의 경우 제품의 실질적인 사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의 암묵적 요구사항은 중요하다.

John(1993), Titman and Wessel(1988)과 Dwyer, Schurr, and Oh(1987)의 연구에서 고객의 암묵적 요구사항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IC codes를 바탕으로 내구재 여부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별도로 내구재와 관련하여 산업분류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사용

-
- 5) 정액법이란 초기의 유형자산 투자로 인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과다한 비용으로 인한 회계상 이익감소를 방지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 6) 정률법이란 초기에 과다한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회계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는 방법이다.

한 SIC codes 분류를 바탕으로 국내의 산업분류를 대응시켜 사용⁷⁾하였다. 즉, 내구재 산업에 해당하면 1을 그 외의 산업에 대하여는 0을 할당하는 더미변수(D_{DUR})를 사용한다.

내구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오랫동안 사용 할 제품이므로 사후서비스(A/S) 등까지를 고려하여 보다 이익이 높은(즉, 영업지속성이 높은) 기업을 선호할 유인이 클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구재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액법의 회계방법을 선택하여 일시에 많은 감가상각비로 인한 이익의 감소를 막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John(1993)과 Titman and Wessels(1988)은 기업과 고객 사이의 암묵적인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품차별성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상대적으로 제품차별성을 갖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격차별성을 갖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고객들에게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일치하여, 제품차별성을 갖기 위해 기업은 제품의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구개발비(R&D)를 사용하였다. 즉, 연구개발비(R&D)가 높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가격차별성보다 제품차별성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 경우 상대적으로 제품차별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내구재 산업의 논리와 유사하게 이익이 높은 기업을 선호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공급업자

공급업자들은 자신들이 공급해준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적시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암묵적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공급업자의 암묵적 요구사항에 의존 정도를 보기 위한 대용치로서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 CGS)를 사용한다. 매출원가(CGS) 변수에는 외부공급업자의 비중이 높은 비제조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내부적으로 직접 창출하는 형태를 갖는 제조업체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급업자의 형태를 나누어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코드를 바탕으로 제조업체(D_{MFG})와 비제조업체(D_{NMFG})를 구분⁸⁾하였다. 즉, 공급업자의 암묵적 요구사항 변수를 비제조업체는 $D_{NMFG} * CGS$ 와 제조업체는 $D_{MFG} * CGS$ 로 구분하여 매출원가(CGS) 변수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급업자의 대용치 변수인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매출원가가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비제조업체이며, 이와 같이 비제조업체의 경우 공급업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급업자는 이익이 높은 기업과의 거래를 선호할 것이며, 특히 공급업자의 힘이 강한 비제조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을 높게 보고할 수 있는 정액법을 선택할 유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7) 만약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대표 품목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하여 내구재 여부 등의 구분을 실시하였다.

8) KIS-VALUE에서 제공되는 산업분류를 이용하여 산업코드가 C로 시작하는 것을 제조업체(D_{MFG})하며, 그 외는 비제조업체(D_{NMFG})로 구분하였다.

(3) 종업원

기업이 종업원들의 암묵적 요구사항에 의존하는 정도는 노동집약도(LABOR)에 따라서 다양할 것이다(즉, 노동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자본재집약도가 높은 기업보다 종업원들의 암묵적 요구사항에 더 의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임금을 정해진 일자에 받고 계속적으로 기업에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익이 높은 기업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설투자가 적어 종업원들의 힘이 강한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기업의 영업활동 등이 잘 행해지고 있다고 알게 하여 안심시킬 유인이 있는바,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선택하여 이익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변수측정을 위하여 전체비율 1을 기준으로 자본재집약도⁹⁾를 나타내는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에서 비상각대상자산을 제외시킨 후 값의 비율을 1에서 차감(즉, $1 - \text{자본재집약도}$)하여 노동집약도(LABOR)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종업원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Ippolito(1987)과 Ippolito and James(1992)에서 퇴직연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퇴직연금제도의 채택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업원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변수로 종업원급여(SAL, 종업원급여-임원급여)를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즉, 종업원의 암묵적 요구사항에 대한 대용치인 종업원급여(SAL)는 그 기업에서 종업원들이 가지는 힘을 측정하는 부분이다. 만약 종업원의 힘이 극히 큰 기업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익배분을 피하기 위하여 정률법을 선호할 유인이 있으며, 반대로 노동집약도의 변수와 같은 논리로 정액법을 선택할 요인도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단기채권자

채무이행계약서 등에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채권자는 사전에 정해진 지급일에 맞춰 채권을 갚고 상호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의 존속기간과 관련한 암묵적인 요구사항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기업은 채권자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더불어 이익을 상향 보고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채권자들 중에서 단기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러한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단기채권자(NP)의 암묵적 요구사항에 의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대용치로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단기채무를 이용한다.

9) 일반적으로 자본재집약도는 유형자산에서 비상각대상자산인 토지, 임목, 건설중인자산을 차감한 후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으며(고윤성(2008)), 본 논문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본재집약도를 계산하여 노동집약도 계산에 적용하였다.

(5) 모든 이해관계자

기업 자신의 명성을 알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구체적인 투자형태로서 광고선전비(ADV) 등이 있다. Nelson(1974)은 광고가 기업의 상품, 서비스 그리고 고급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질적 우세와 같은 신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이전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기업에서는 이미 관련 상품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광고를 통하여 대중에게 홍보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내보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기업의 의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광고하는 것으로도 볼 있다. Klein and Leffler(1981)과 Milfrom and Rovers(1986)은 관련 모델을 정하여 만약 기업이 미래에 투자한 광고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광고비를 지출한 경영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Kirmani and Wright(1989)은 광고의 정도와 주주의 이익보고의 관계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실증분석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Garbett(1982)는 기업의 현재와 잠재적인 고객, 종업원, 투자자와 대중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광고비를 지출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광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은 그 만큼 상품과 서비스의 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인 요구사항에 의존하여 이익을 상향 보고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즉, 기업의 광고비(ADV)는 암묵적인 요구사항의 종속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한다.

(6) 자산성장성

자산성장성과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가속상각으로 자산의 교체시기를 짧게 가져갈 유인이 있어 자산성장성과 감가상각방법간에 음(-)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무적 안정성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이익을 증가시키는 정액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자산성장성과 감가상각방법간에 양(+)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클 것인가에 따라 감가상각방법 선택과 자산성장성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대부호를 미리 예상하지 않았다. 3년간 자산변동의 평균을 계산하여 자산성장성(GW)에 따른 감가상각선택방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⁰⁾

10)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가정하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장기적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자산성장성 계산시 3년간을 평균하여 계상하였다. 5년간의 평균치로도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나 3년간의 평균치로 측정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를 사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다. 통제변수

연구가설은 모든 다른 유인들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단기채권자들의 암묵적 요구에 의존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방법 선택을 위한 다른 유인들은 통제되어야 한다. 회계처리방법 선택과 관련된 선행논문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1) 부채비율

부채계약에서는 경영자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부채비율(LEV)을 많이 사용한다. 자금조달과 관련된 규제에서는 사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리인 관계 문제가 존재하며 위반시에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도 경영자가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owen, Noreen and Lacey, 1981 ; Duke and Hunt, 1990 ; Press and Weintrop, 1990). 따라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기업에서는 이익을 상향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 기업규모

정치적비용가설에 의하면, 정부와 관계당국은 사회통제의 차원에서 기업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민감도가 큰 기업(기업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부의 이전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을 낮게 보고 할 회계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agerman and Zmijewski(1979)와 Watts and Zimmerman(1978, 1986)는 기업규모(SIZE)가 큰 기업과 정부규제가 많은 기업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영진의 회계방법 선택과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박윤중(2003)과 박항준(2005) 연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적 민감도가 큰 기업일지라도 기업의 부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회계이익을 보고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 수익성

기업은 이익을 높게 보고하여 투자자 등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우호적인 판단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수익성(ROA)이 높은 기업은 반면에 조세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윤성(2008)에 의하면, 기업의 수익의 수준에 따라 과중한 세금비용이 부담될 경우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법인세 유연화 동기가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윤중(2004)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회계이익이 적게 계상되는 정률법을 선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4) 내부소유집중도

경영자의 내부소유집중도(PER)가 높은 기업의 경우 외부주주의 압력이 작기 때문에 회계이익 증가를 통한 주가상승 등의 외부압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기업경영자의 지분소유정

도와 회계이익 및 선택의 관련성에 대하여, 경영자 보유지분이 증가할수록 이해관계가 단순비례로 증가하여 회계이익도 증가하는 것으로 Jensen and Meckling(1976)과 Dhaliwal et al.(1982)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대로 Hindley(1970), Demsetz and Lehn(1985)와 Brickley and James(1987)는 경영자소유지분비율의 차이가 있더라도 회계방법의 차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법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 ① 한국상장기업협회의 TS2000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재무자료가 유효한 기업
- ②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가상각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
- ③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 제외
- ④ 자본잠식 기업 제외

표본 선정시 ③의 경우는 제조업과 다른 업무특성을 가지며 또한 유형자산의 투자액 및 감가상각비 비율이 적은 금융업을 제외하여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비교적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타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무자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④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즉,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는 것은 기업명성 유지를 위한 역할이 클 것이다. 그러나 당기이익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있어서는 회계방법 선택에 있어 기업의 명성유지에 기초한다는 가설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요구되는 제조업 여부와 내구재 여부의 분류를 위한 산업분류는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산업코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표본의 수는 <표 2>와 같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연도 표본 수는 5,144개 이다. 그리고 재무자료 획득이 어려운 경우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감가상각방법을 파악할 수 없는 각각의 표본 수 259개와 1,341개를 제외하였다. 또한 자본잠식 기업의 표본 수 61개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표본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표본은 총 3,483개 이다.

〈표 2〉 표본선정 결과

항 목	합 계
거래소 상장 제조업 기업-연도 표본	5,144
(차감) 재무자료의 획득이 어려운 경우	(259)
(차감) 감가상각방법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1,341)
(차감) 자본잠식인 경우	(61)
분석대상 표본 수	3,483

다음 <표 3>은 산업별 분포의 기업-연도 표본 수와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산업별 분포 및 감가상각방법 선택 비율

산업명	표본	상각방법 비율		산업명	표본	상각방법 비율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정률법
의복·섬유 제조업	166	34%	66%	금속 제조업	283	46%	54%
식·음료 제조업	254	55%	45%	비금속 제조업	228	40%	60%
화학제품 제조업	653	48%	52%	운송장비 제조업	289	50%	50%
목재·가구 제조업	168	76%	24%	전자·기계 제조업	517	43%	57%
건설업 등	202	36%	64%	운송 및 공급업	150	66%	34%
도·소매업	225	40%	60%	서비스업 및 기타	348	38%	62%
합 계					3,483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표본수가 653개로 전체 표본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517개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산업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비율을 보면, 목재·가구 제조업과 운송 및 공급업의 경우 기업-연도 표본수가 각 168개와 150개이며 약 76%와 66%가 정액법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에 의복·섬유 제조업, 건설업 등, 도·소매업, 비금속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기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률법을 선택하고 있는 기업이 각각 약 66%, 64%, 60%, 60%와 62%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산업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의 선택 비율이 비슷하거나, 식·음료업을 제외하고는 정률법 선택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극단치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변수 분포의

양쪽 끝 1% 이내에서 그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부여하는 winsoriz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¹¹⁾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4>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감가상각방법(DM)에 있어 정률법과 정액법의 사용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약 46%로, 기업에서 채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정률법이 정액법에 비하여 약 5.4 : 4.6 정도의 비율로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LEV)의 경우 평균값과 중간값은 각 34.75%와 9.65%이고, 표준편차는 88.25%로 나타났다. 이는 winsorization 기법을 통해 상·하위 1%에서 극단치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하여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내부소유집중도(PER)의 경우에서 평균값이 33.78%로 특정인에게 상당히 높은 지분이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제조업($D_{MFG} * CGS$)과 비제조업($D_{NMFG} * CGS$)의 평균값은 각각 55.27%와 21.76%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은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있으며, 관련 감가상각대상자산 또한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제조설비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제조업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른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 감가상각방법 선택에 따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의 크기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사용한 기업규모(SIZE)의 평균값과 중간값은 각각 19.46과 19.15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비(R&D)와 광고선전비(ADV)의 경우 평균값이 각 1.08%와 0.82%로 이와 관련하여 투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winsorization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일정범위 이상의 값을 제거하는 절단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표본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4〉 표본의 기술통계량 (N=3,483)

변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감가상각방법(DM) ¹²⁾	0.4628	0.4987	0.0000	0.0000	1.0000
노동집약도(LABOR)	0.7902	0.1392	0.3340	0.8214	0.9921
연구개발비(R&D)	0.0108	0.0197	0.0000	0.0026	0.1201
단기채권(NP)	0.0968	0.1026	0.0000	0.0666	0.4361
내구재(D _{DUR})	0.5834	0.4931	0.0000	1.0000	1.0000
광고선전비(ADV)	0.0082	0.0177	0.0000	0.0011	0.0968
제조업(D _{MFG} *CGS)	0.5527	0.3911	0.0000	0.6797	1.8912
비제조업(D _{NMFG} *CGS)	0.2176	0.3778	0.0000	0.0000	1.8912
종업원급여(SAL)	0.0635	0.0515	0.0033	0.0507	0.2745
부채비율(LEV)	0.3475	0.8825	0.0000	0.0965	6.6344
기업규모(SIZE)	19.4601	1.4620	16.9691	19.1539	23.7005
총자산수익률(ROA)	0.0463	0.0873	-0.3416	0.0472	0.3142
내부소유집중도(PER)	33.7816	18.0559	0.0000	32.8100	79.8700
자산성장성(GW)	0.0254	0.2022	-0.4794	-0.0088	1.0145

주) 변수의 측정방법 정의

감가상각방법(DM_{it}) = 정액법이면 1, 정률법이면 0

노동집약도(LABOR_{it}) = 1 - {(유형자산-토지-임목-건설중인자산)/총자산}

연구개발비(R&D_{it}) = 주식사항에 공시된 연구개발비/매출액

단기채권(NP_{it}) = 단기차입금/총자산

내구재(D_{DURit}) = 내구재이면 1, 아니면=0

광고선전비(ADV_{it}) = 광고선전비/매출액

제조업(D_{MFG}*CGS_{it}) = 제조업이면 1, 아니면=0

비제조업(D_{NMFG}*CGS_{it}) = 비제조업이면 1, 아니면=0

종업원급여(SAL_{it}) = (종업원급여-임원급여)/매출액

부채비율(LEV_{it}) = 부채/자본 (부채항목 중 장기차입금과 사채만 포함하여 계상)

기업규모(SIZE_{it}) = log(총자산)

총자산수익률(ROA_{it}) = (세전이익+감가상각비)/총자산

내부소유집중도(PER_{it}) = 최대주주지분율

자산성장성(GW_{it}) = $\Delta(\text{유형자산}-\text{토지}-\text{임목}-\text{건설중인자산})/(\text{유형자산}-\text{토지}-\text{임목}-\text{건설중인자산})_{t-1}$

(모든 변수는 i기업의 t시점(또는 t-1시점)의 값으로 하여 계상)

- 12) 감가상각방법(DM)을 적용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평균 약 46%가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정액법)을 선택하였다. 반면에 평균 약 54%가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표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표본기간 동안 이익을 증가시키는 감가상각방법(정액법)을 선택하는 표본기업의 비율이 단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감가상각대상 자산별(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등)로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산별로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자산별로는 추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종류 중에서 건물의 경우, 법인세법상에서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한 결과이다.

2. 상관관계 분석

<표 5>에서는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요약한 결과이다.

감가상각방법(DM)과 부채비율(LEV)과의 관계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익성(ROA)과는 -0.064 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익성(ROA)이 높을수록 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익을 하향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규모(SIZE)와 부채비율(LEV)의 관계는 0.048 로 기업규모(SIZE)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비율(LEV)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LABOR)일수록 정액법 적용과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자본재집약도가 높을수록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집약적(LABOR)일수록 수익성(ROA)과 0.109 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부채비율(LEV)과는 -0.190 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박윤중(2004)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구재(D_{DUR})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제조업(D_{MFG}*CGS)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또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이익을 상향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광고비(ADV)와 종업원급여(SAL)의 경우 또한 예상한바와 일치하는 유의한 양(+)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자산성장성(GW)과 기업규모(SIZE)는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산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분산확대인자(VIF)값을 확인하였고,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대부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5〉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DM	LEV	LABOR	R&D	SIZE	D _{MFG} *CGS	NP	ROA	D _{DUR}	ADV	SAL	PER	GW
DM	1												
LEV	0.112***	1											
LABOR	-0.452***	-0.190***	1										
R&D	0.007	-0.027	0.039***	1									
SIZE	0.354***	0.048***	-0.191***	0.069***	1								
D_{MFG}*CGS	0.048***	0.019	-0.165***	0.117***	-0.199***	1							
NP	0.015	-0.180***	0.047***	0.131***	0.229***	0.179***	1						
ROA	-0.064***	0.239***	0.109***	0.010	0.129***	-0.149***	-0.276***	1					
D_{DUR}	0.085***	-0.020	-0.133	0.029*	-0.010	0.329***	-0.036**	-0.097***	1				
ADV	0.087***	0.037**	-0.078***	-0.172***	-0.025	0.127***	-0.059***	-0.136***	-0.314***	1			
SAL	-0.170***	0.013	-0.001	0.141***	-0.265***	-0.018	-0.011	0.055***	-0.142***	0.278***	1		
PER	-0.004	-0.138***	-0.055***	-0.071***	-0.082***	0.065***	0.017	0.088***	0.046***	-0.002	-0.067***	1	
GW	-0.018	-0.125***	0.195***	0.020	0.041***	-0.061***	0.082***	0.121***	0.001	-0.030*	-0.064***	0.050***	1

주1)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2) 표시된 통계량은 Pearson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3. 분석결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이면 1, 정률법이면 0으로 하는 감가상각방법(DM)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설 1>과 <가설 2>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택한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자산성장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로 <표 6>의 Panel A와 Panel B이다.

<표 6> 감가상각방법(DM)과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 및 자산성장성의 관련성 분석

$$DM = a_0 + a_1D_{DUR} + a_2R\&D + a_3SAL + a_4LABOR + a_5D_{MFG} * CGS + a_6NP + a_7ADV + a_8LEV + a_9ROA + a_{10}SIZE + a_{11}PER + \varepsilon \quad (1)$$

$$DM = a_0 + a_1D_{DUR} + a_2R\&D + a_3SAL + a_4LABOR + a_5D_{MFG} * CGS + a_6NP + a_7ADV + a_8LEV + a_9ROA + a_{10}SIZE + a_{11}PER + a_{12}GW + \varepsilon \quad (2)$$

변 수 \ 구 분	Panel A	Panel B
Intercept	-3.1534 (15.355)***	-2.8609 (12.443)***
노동집약도(LABOR)	-8.3022 (412.158)***	-8.5747 (418.594)***
연구개발비(R&D)	6.8920 (9.660)***	6.5896 (8.898)***
제조업(D _{MFG} *CGS)	0.3217 (6.751)***	0.3184 (6.561)***
단기채권(NP)	0.1995 (0.212)	0.1529 (0.123)
내구재(D _{DUR})	0.5078 (27.537)***	0.5030 (26.849)***
광고선전비(ADV)	9.1006 (11.190)***	9.0888 (11.126)***
종업원급여(SAL)	-6.5243 (46.264)***	-6.3958 (44.149)***
부채비율(LEV)	0.0443 (5.635)**	0.0495 (6.955)***
기업규모(SIZE)	0.5316 (228.079)***	0.5271 (223.094)***
총자산수익률(ROA)	-1.7493 (10.531)***	-1.8639 (11.783)***
내부소유집중도(PER)	-0.0038 (2.536)	-0.0044 (3.345)*
자산성장성(GW)	—	0.7900 (13.944)***
Likelihood ratio	1,279.11 (0.000)***	1,292.84 (0.000)***
Percent Concordant	83.1	83.3

주1)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2) 변수 측정의 정의는 <표 4>와 동일하다.

3) 계수 옆에 위치한 괄호안의 수치는 Wald 통계량이다.

4) 모형통계량에서 Likelihood Ratio는 Chi-Square 통계량이며, 괄호안의 값은 p값이다.

Panel A는 감가상각방법과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로서, 고객의 암묵적 요구사항의 대응치 변수 중 하나로 사용한 내구재(D_{DUR}) 변수는 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계수값 0.5078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객은 장기간 사용할 의도가 있는 제품을 구입시에는 사후서비스(A/S)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속성이 높은 기업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내구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일시에 많은 감가상각비로 인한 이익의 감소를 막으려고 할 것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비(R&D) 변수는 고객과의 암묵적 요구사항의 대응치로 포함된 것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즉 내구재(D_{DUR})와 유사하게 제품차별성을 갖는 기업들도 정액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높게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집약도(LABOR) 변수는 종업원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앞서 예상한 방향과는 달리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인 -8.3022로 나타났다. 이는 Bowen et al.(1995)에서 높은 자본재집약도를 갖는 기업보다 높은 노동집약도(LABOR)를 갖는 기업이 더 종업원의 암묵적 요구에 의존할 것이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 고윤성(2008)과 박윤중(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 및 경영특성이 같다면 설비투자가 많은 기업(자본재집약도가 높은 기업)이 투자초기에 수익성이 낮아지므로 이익도 적절히 계상하기 위해 정액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Hagerman and Zmijewski(1979)는 자본재집약도가 높은 기업이 이익증가로 계상하는 정액법을 선택한다고 보고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종업원급여(SAL) 변수는 종업원의 암묵적 요구에 대한 대응치로서, 기업에서 종업원이 가지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포함하였다. 검증결과 -6.5243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종업원이 가지는 힘이 커질수록 기업은 이익배분을 피하기 위하여 정률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낮게(하향) 보고하려는 유인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Bowen et al.(1995)에서 종업원연금제도(Defined benefit pension plan)를 이용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D_{MFG} * CGS$) 변수는 공급업자의 암묵적 요구에 대하여 포함된 독립변수로, 제조업 여부에 따라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제조업($D_{MFG} * CGS$)과 비제조업($D_{NMFG} * CGS$)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제조업($D_{MFG} * CGS$)의 경우 0.3217로 1%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제조업체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 즉, 결산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분되고 매출원가를 구성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조설비의 비중이 큰 제조업체는 감가상각비로 인한 이익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고자 정액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상향 보고 하려는 유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채권자의 대응치로 사용된 단기채권(NP) 변수는 0.1995로 양(+)의 값을 보이나 유의하

지 않은 값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Bowen et al.(1995)에서도 본 연구와 일치하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나타내는 광고선전비(ADV) 변수는 또한 9.1006으로 양(+)으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로 포함된 것으로 기업규모(SIZE)와 관련하여, 정치적 민감도가 큰 기업에서는 부의 이전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을 낮게 표시할 수 있는 회계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하여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정책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¹³⁾가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는 양(+)으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지라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의 이유로 보고이익을 높게 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기업에서는 정액법을 선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내연구 박운중(2004)과 김상기 외(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채계약에서 경영자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포함한 부채비율(LEV)도 부채비율(LEV)이 높은 기업에서는 지급이자가 많으므로 이익증가 효과가 있는 회계방법인 정액법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여 0.0443으로 양(+)의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채비율(LEV)이 높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방법 중 이익을 상향 보고할 수 있는 정액법을 선택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익성(ROA)은 1% 유의수준에서 -1.7493으로 음(-)의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익성(ROA)이 높은 기업은 이익을 적게 인식하고자 하는 일반론이 작용하여, 이익을 적게 계상할 수 있는 정률법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박운중(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내부소유집중도(PER)는 -0.0038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고윤성(2008)에서 내부소유집중도가 높은 경우, 기업에 대한 외부시장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가급적 세금비용을 감소시키므로써 현금유출을 막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정의 일시적 차감 조정빈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적인 결과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6>의 Panel B는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게 유지되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자산성장성(GW)의 변수를 포함하여 일정수준으로 자산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자산의 증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자산성장성(GW)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관련한 연구결과, 자산이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이익을 상향 보고 할 수 있는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성장성(GW)이 증가하는 기업은 자산의 처분과 구입 또는 교체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자산

13) Watt, R and J. Zimmerman(1978) "Toward a positive theory of the determin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he Accounting Review*.

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등 자산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기업환경이 성장 또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관련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서도 내부소유집중도(PER)의 경우 유의한 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Panel A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로짓분석의 결과로 X^2 은 Panel A와 Panel B 각각 1,279.11과 1,292.84로 Panel B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 중 정액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정률법을 사용하는 기업보다 낮은 이익을 보고할 것이며 따라서 앞의 가설에서 주장하는 암묵적인 요구사항과 감가상각방법 선택의 연관성에 대한 논리가 적절하지 않아 표본에서 자산성장성(GW)이 0 미만인 기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표로 제시하지는 않음), 자산성장성(GW)이 증가하는 기업일 경우 위의 <표 6> Panel B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1.3337로 1%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사항 대리변수도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 전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보인다.

4. 추가분석

자산별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도 존재하므로,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에 따라 자산별로 다른 유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별도의 표를 작성하여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계장치의 경우 전체 자산별로 분석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제조업(D_{MFG}*CGS)의 계수값이 0.3025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단기채권(NP)은 유의하지 않은 값을 갖는 반면에 내부소유집중도(PER)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가상각대상 자산 중 공기구비품은 부채비율(LEV)과 내부소유집중도(PER)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있으며, 차량운반구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앞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에 다른 유인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내구재(D_{DUR})와 부채비율(LEV)과 내부소유집중도(PER) 등이 자산별로 유의수준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앞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에 따라 이익을 상향보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액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업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기업과 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거래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이 명시적인 계약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관행이나 실무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의존하여 이익을 상향 보고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그 중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내·외부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암묵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과 관련이 있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그 동안 쌓아올린 명성 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에 유리한 회계방법을 선택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일정수준으로 자산의 규모를 유지시키거나 영업환경의 개선 등에 따라 자산의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사항과 자산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정액법)을 선택하여 이익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의 종류를 종속변수로 하고 고객과 공급업자, 종업원, 단기채권자의 암묵적인 요구사항에 의존하는 정도에 대한 대응치로 선택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검증하였다. 암묵적인 요구변수 8개 중 단기채권(NP)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변수는 표본기간 동안 예상한 것과 같이, 기업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한다는 것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비록 단기채권(NP) 변수의 계수가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관련한 예상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변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에 의존하여 이익을 상향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는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산성장성(GW)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선택의 관련성도 분석한 결과, 자산의 지속적인 증가 또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 또한 이익을 상향 보고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무적 안정성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이익을 증가시키는 정액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자산성장성과 감가상각방법간에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특히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로 이해관계자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 요구까지를 고려함으로써, 경영자가 회계방법의 선택에 기업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인하여 유리한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Bowen et al.(1995)의 연구를 확장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암묵적 요구와 경영자의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로 기존의 감가상각방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세금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법인세법상에서 제

시되어 있는 감가상각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의 경우는 이해관계자의 암묵적인 요구 등을 포괄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에 유리한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유인도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기회주의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감가상각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이 일정하게 유지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무적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이익을 상향 보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유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시 이해관계자를 대용하는 변수를 통하여 암묵적인 요구사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수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내구재 등의 산업분류에 있어 자의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 기업별 세무조정의 번거로움의 차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관련 분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더 강력한 검증을 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기업간 특성을 고려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견고히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은 후속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운성. 2008.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형태”.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1호 : 63 - 94.
- 김상기 · 김태동 · 김성환 · 오운숙. 2010. “감가상각방법과 상각기간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 45 - 66.
- 박윤중. 2003. “기업소유구조와 감가상각방법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4권 제1호 : 219 - 263.
- 박윤중. 2004. “기업의 설비투자규모와 수익성이 감가상각방법 선택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5권 제2호 : 79 - 105.
- 박항준. 2005. “기업의 재무특성요인과 회계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 525 - 551.
- 이인순. 1994. “경영자의 회계정책 선택동기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진권. 1994. “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94-06.
- Bowen, R. M., L. DuCharme, and D. Shores. 1995. Stakeholder's implicit claims and accounting method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3) : 255-295.
- Bowen, R., E. Noreen, and J. Lacey. 1981. Determinants of the corporate decision to capitalize interes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2) : 151-179.
- Brickley, J. and C. James. 1987. The Takeover Market, Corporate Board Composition and Ownership Structure : The Case of Banking.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0(1) : 161-180.
- Bull, C.. 1987. The existence of self-enforcing implicit contrac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2(1) : 147-159.
- Christie, A. and J. Zimmerman. 1994. Efficient and opportunistic choices of accounting procedures : Corporate control contests. *The Accounting Review* 69(4) : 539-566.
- Cornell, B. and A. Shapiro. 1987. Corporate stakeholders and corporate finance. *Financial Management* 16(1) : 5-14.
- Demsetz, H.. 1983. The structure of ownership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 375-390.
- Demsetz, H. and K. Lehn. 1985.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 1155-1177.
- Dhaliwal, Dan S., Salamon Gerald L., Smith E. Dan. 1982. The Effect of Owner versus Management control on the choice of accounting method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1) : 41-53.
- Duke, J. and H. Hunt. 1990. An empirical examination of debt covenant restrictions and accounting related debt prox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2(1-3) : 45-63.
- Dwyer, F., P. Schurr, and S. Oh. 1987. Developing buyer-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51(2) : 11-27.

- Garbett, T.. 1982. When to advertise your company. *Harvard Business Review* : 100—106.
- Hagerman, R. L., and M. E. Zmijewski. 1979. Some Economic Determinants of Accounting Policy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2) : 141—161.
- Hindley, B.. 1970.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the modern corporation.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3(1) : 185—222.
- Holthausen, Robert W. and Richard W. Leftwich. 1983.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Accounting choice implications of Costly Contracting and Monitor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 77—177.
- Ippolito, R.. 1987. The implicit pension contract : developments and new direc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2(3) : 441—467.
- Ippolito, R. and W. James. 1992. LBOs, reversions and implicit contracts. *Journal of Finance* 47(1) : 139—167.
- Jackson, S., X. Liu and M. Cecchini. 2009. Economic consequences of firms' depreciation method choice : Evidence from capital inve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8(1) : 54—68.
- Jensen, M. C. and W. H.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 305—360.
- John, T.. 1993. Accounting measures of corporate liquidity, leverage, and costs of financial distress. *Financial Management* 22(3) : 91—100.
- Kirmani, A. and P. Wright. 1989. Money talks : Perceived advertising expense and expected product qual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3) : 344—353.
- Klein, B. and K. Leffler. 1981. The role of market forces in assuring contractual perform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4) : 615—641.
- Macneil, I. 1978. Contracts : Adjustment of long term economic relations under classical, neoclassical, and relational contract law.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72(6) : 854—905.
- Macneil, I.. 1980. The new social contract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C'i).
- Maksimovic, V. and S. Titman. 1991. Financial policy and reputation for product quality. *Review of Financial Studies* 4(1) : 175—206.
- Maunders, K. and B. Foley. 1974. Accounting information, employees and collective bargaining.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1(1) : 109—127.
- Milgrom, P. and J. Roberts. 1986. Price and advertising signals of product 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4) : 796—821.
- Nelson, P. 1974. Advertising as inform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4) : 729—754.
- Pincus, M.. 1994. Earnings effects of alternative accounting methods and sufficiency of disclosures. Working paper(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 Press, E. and J. Weintrop. 1990. Accounting based constraints in public and private debt agreements :

- Their association with leverage and impact on accounting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2(1-3) : 65-95.
- Skinner, Douglas J.. 1993. The investment opportunity set and accounting procedure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6(4) : 407-445.
- Tesler, L.. 1980. Theory of self-enforcing agreements. *Journal of Business* 53(1) : 27-44.
- Titman, S.. 1984. The effect of capital structure on a firm's liquidation decis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3(1) : 137-151.
- Titman, S. and R. Wessels. 1988. The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choice. *Journal of Finance* 43(1) : 1-19.
- Watts, R. and J. Zimmerman. 1978. Towards A Positive Theory of the Determin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he Accounting Review* 53(1) : 112-134.
- Watts, R. and J.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 J).

The Relation between Stakeholder's Claims and Firm's Depreciation Method Choices

Yi, Hwa Deuk* · Park, Sun Hee**

〈Abstract〉

Management's key roles are coordinated with the various interests between the external and internal stakeholders to pursue firms' growth and profitability and maximize the firm value. Firms often enter into explicit contracts with their stakeholder, but many ongoing relations remain implicit in practice. Implied commitments generally have no legal standing, a firm is able to negotiate with its stakeholders depend in part on the firm's reputation for fulfilling its implied commitments.

Stakeholders that related to directly or indirectly the firm's profitability and growth are likely to use to such a firm's financial condition and reported accounting numbers to help assess the firm's reputation for fulfilling its implicit claims, and so will pay attention to that. Implicit claims of the stakeholders over the long term are a significant factor in the firm's survival and development. Therefore, management's choice of income-increasing accounting methods predict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tent to which the firm depends on implicit claims with these stakeholder groups and growth of assets. But such accounting-based choice did little to study.

In this study, based on theory and anecdotal evidence, between a firm and its stakeholders ; customers, suppliers, employees and short-term creditors create incentives for management to choose long-run income-increasing depreciation methods. This study Bowen et al.(1995) and, by extension, the depreciation method is chose stakeholders in the accounting their implicit claims and growth of assets is to analyze how the affecting. With respect to the implicit claims of the stakeholders selected proxies and the control variables a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cross-sectional variation in depreciation methods : firm size, debt ratio, return on assets, internal concentration of ownership, and how to choose the depreciation method with respect to the systematic empirical analysis was associated significantly.

A common conclusion in this paper is that a firm is able to negotiate with four specific stakeholders groups ; customers, suppliers, employees and short-term creditors depend on its reputation for fulfilling its implicit claims.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Hanyang University, hwayi@hanyang.ac.kr

** Ph.D 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sunny@hanyang.ac.kr

This provides management with an incentive to choose income-increasing depreciation methods, and strength of this incentive varies with the extent to which the firm depends on implicit claims with its stakeholders, especially customers, suppliers and employees. And supposing that the assets increase or maintain at certain level, these firms usually choose a income-increasing depreciation method.

〈Key words〉 accounting choice, depreciation method, straight-line method, accelerated method, earning management, implicit claims, stakeholders, growth of asset